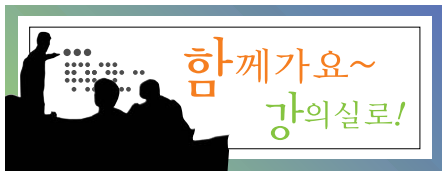


# 사회 전반의 상생과 소통이 진정한 사회발전을 이뤄



**강사:** 이근식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일시:** 2008년 1월 12일  
**주최:** 한국학술진흥재단 (hlectures.krf.or.kr)

## ‘인문학 위기’에서 인문학을 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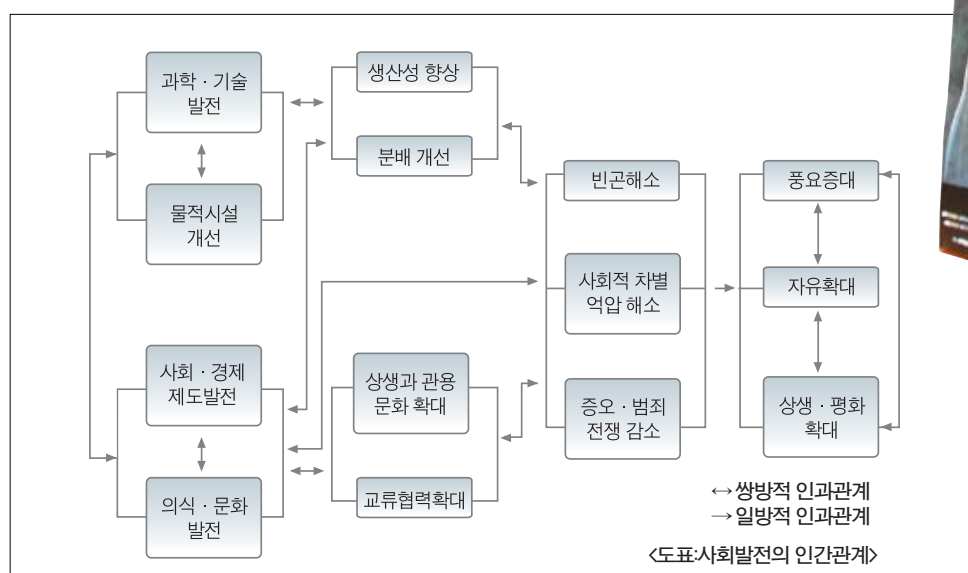
인문학은 무엇일까?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와 같은 추상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학문이다.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인문대 졸업생의 낮은 정규직 취업률, 대학의 인문학과 폐지와 정원 축소를 인한 학내 갈등 등은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인문학을 넘어 인간사회 전반의 혼란을 예고한다는 데서 큰 문제다. 이런 가운데 인문학이 직접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자리가 마련됐다. 학술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주최로 마련된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는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동서양 고전해석과 현대, 자유-정의-상생과 사회발전, 사회의 도덕적 기초, 21세기 역사학-우주과학과의 만남, 법-사회-인권 등 ‘사회의 인문적 기초’라는 주제로 각 분야 석

학을 초청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좌는 우리 사회의 인문적 화두를 놓고 공감하는 자리다. 강의를 들은 정훈식(오산고 교사)씨는 “정보화 시대 교육이 단순히 요점 정리를 전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전략한 인문학 부재가 오늘의 강좌를 더욱 가치 있게 한다. 이번 강좌를 통해 <국부론>을 읽게 됐다”고 말한다. 문학에 평소 관심 있었거나 이번 강좌로 관심을 갖게됐다는 다른 참석자들도 석학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공유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오늘 강좌는 이근식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과)가 ‘자유-정의-상생과 사회발전’을 주제로 강의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회발전의 의미와 방법’을 주제로 인문학적 사유를 함께 나눴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좋은 사회란 자유, 평등, 그리고 상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라고 볼 수 있지요. 이 강좌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상생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울러 이 강좌는 인간성의 핵심이 윤리의식에 있다고 보고자 합니다. 과학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과학실증주의를 배격하고, 건강함 윤리의식에 입각한 건전한 가치판단을 견지할 것입니다.

으로 지닌 것으로 기껏해야 사회라는 것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등장은 중앙아시아는 4000-5000여 년 전 이었고 중국은 3000-4000여 년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는 원시공산사회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계급도 없이 평등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추앙하는 아담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수렵과 채집이 지나 생산력이 발전하고 목축시대 단계가 되자 사유재산이 생기고 빈부 격차로 계급이 생겼다. 소수의 부자는 다수의 빈자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법과 군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가가 등장한 이래로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면 ‘지배층의 소수는 다수의 백성을 착취했기에 사회발전이란 것이 나타날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성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도표에 표시된 것처럼 사회 요인들은 서로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는 시대나 세속적 권력에서 독립된 계급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승려가 그 역할을 했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 역할은 요구됩니다. 현대판 승려는 세 가지 부류입니다. 언론인, 판사, 학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독일 재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빌헬름 레프케의 <휴머니즘의 경제학> 원본을 봅시다. 이성적 사회발전에서 의존하는 이성은 사실관념력 뿐 아니라 가치판단력(윤리의식)을 합한 것입니다. 이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십시오. 개혁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허용하는 관용의 풍토가 조성돼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 모두의 조화를 위한 의식개혁을 위해 사회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하십시오. 사회 공감대를 얻어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시대정신이 형성될 때 이성적 사회개혁은 이뤄집니다.

글 · 사진=기연속 객원기자 omflower@hanmail.net

오늘의 주제는 ‘사회 발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완성되는가’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보이는 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내가 자유주의를 좋아 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인간의 불완전성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강연에서 고찰하는 ‘자유-평등-사회발전’ 등의 주제는 추상적인 문제입니다. 내 공부는 한계가 있기에 내 생각은 주관적이며 한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듣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비판하고 생각하기를 당부합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하게 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동양은 중국이 중심인데 중국인에게 4000여년 전 과거 속 요임금과 순임금 시절이 이상향이었습니. 성경에서도 옛날 에덴동산이 이상이었지 앞으로 올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이상향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은 동서양이 공통적

사회발전이란 생각은 상당히 근대적입니다. 이 생각이 시작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본주의 덕분입니다. 근대 중소상공업자부르조아들의 시민 혁명 이후 사회가 발전하리라는 생각을 지니게 됐습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가장 명료하게 보이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사회발전단계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수렵사회-목축사회-농업사회-상공업사회’로 인류사회가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노력하면 더욱 빨리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발전은 아주 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본주의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전제군주가 민주주의로 대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사회발전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오버오바 ‘지론’에 대한 이근식 교수의 표현 ‘사회발전을 믿은 나머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부자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 피고용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낙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적 낙관론이 작용했습니다. 이런 주

장은 평생을 유복하게 살았던 아담 스미스 본인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마르크스의 오버오바 “원시공산사회-거대노예사회-중세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사회주의사회.” 마지막 사회주의사회는 마르크스가 확신하는 이상세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둘 다 틀렸습니다. 경제발전론에 관한 최고인 아서 루이스가 발표한 기술적 경제모델 이론은 단순합니다. “튼튼한 엄마가 튼튼한 아기를 낳는다.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쉬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쉬는 비율이 문제가 되겠지요. 자본주의 비율을 많이 하고, 사회주의 정부 부분을 적절히 혼합해야 합니다. 그 비율은 공무론 수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투명성을 높여준다면 저절로 알아서 열심히 이뤄질 것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가난의 추방입니다. 밀(Mill)은 생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인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유’라 했습니다. 자유란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자유의 확대는 평등 확대의 과정과 일치합니다. 역량의 추방이 자유입니다. 사람간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만 가지고서는 인간사회가 조화롭지 못합니다.

‘상생’ 해이란 혼란하고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사회발전은 풍요, 자유와 평등, 상생의 확대입니다. 총체적 사회발전을 의미하는 ‘사회발전의 인간관계’도표처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물질 시설 두 요소의 발전이 중요함은 자명합니다. 또한 경제사회제도와 의식문화라는 두 요소의 발전도 생산

## 태극팔괘

재수 좋은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인제나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풍수인테리어로 음양의 조화를 맞추고 기의 순환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윤택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태극팔괘는 음(陰)과 양(陽)의 조화속에 우주의 여덟가지 신비스런 힘으로 보이지 않는 화살로 알려진 독화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해 줄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분들의 행복한 삶을 바라시는 분, 개업 축하 선물, 집들이 선물로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태극팔괘를 현관에서 마주보는 문이나 벽면, 거실에 걸어주시고, 책상위에도 놓아 주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삶이 다가올 것입니다.

신주 80,000원  
 태극팔괘 신주 70,000원  
 태극팔괘 실버 80,000원  
 태극팔괘 주석 70,000원

▶ 사이즈 : 25cm x 25cm  
 ※ 책상위 비저용 삼각대는 별도구매

대면 [www.daehyun-i.com](http://www.daehyun-i.com) (인터넷주문도 가능합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2-55 토마스빌딩 405호 (농협 : 143-02-236570 김영현)  
 ● 구입문의 02)389-6220 / 011-384-3566 / 016-264-1084

##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범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행특허 0554383호

## 고무신코 만행화

방한용달신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부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특 무 명      사계절단화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지압갈창  
 발명특허권41435  
 ● 가격 : 10,000원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진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컷다불교점 054)655-2525